

광주 아파트경기 하락세 돌아서나

올들어 거래량 작년보다 38% 줄어 가격 상승세 주춤...실거래가 하락도

올들어 광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폭 떨어졌다. 매매가 상승세도 주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동안 과열조짐까지 일던 광주 아파트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부동산정보포털 온나라(www.onnara.go.kr)의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들어 9월말까지 광주지역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1만5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936건보다 무려 37.9%(9453건)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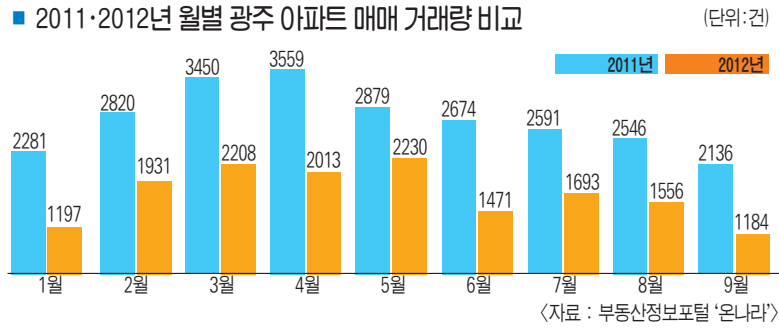
월별 거래량은 1월 1197건, 2월 1931건으로 출발해 성수기인 3~5월 각각 2208건, 2013건, 2230건으로 간

신해 2000건을 넘겼다. 6월부터는 다시 1471건, 1793건, 1556건, 1184건으로 떨어지며 거래가 한산했다.

이는 월 평균 거래량이 1720건에 불과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월 평균 2770건에 비해 1000건 이상 매매가 줄어든 것이다.

물론 오르던 매매기도 주춤하고 있다. 광주지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7월 138.6으로, 1월 135.6에서 3.0 상승했다. 특히 7월에는 전년(139.1)보다 지수가 0.5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시장에서는 드문 일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3.7에서 130.1로 7개월만에 지수가 16.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미미한 것이다. 실제 실거래가가 하락한 아파트 단



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광산구 수안동 코오롱하늘채(104m 1층)는 지난 7월 2억5800만원이던 매매가가 8월 말 2억5500만원으로 한 달 새 300만원 떨어졌다. 7월 1억8400만원에 거래됐던 신가6차부영(85m 15층)도 9월 1억7400만원에 거래됐다. 서구 치평동 대우금호(60m)는 7월 1억3600만원에서 8월 1억3000만원, 9월 1억2800만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시장도 열기가 줄었다.

지난해 전 평형대 1순위 청약 마감 돌풍을 일으켰던 청약시장은 최근들어 청약 미달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2년 사이에 광주지역에 분양 물량이 쏟아져 공급과잉 우려마저 일고 있다"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데다, 내년이후 입주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지역 아파트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국환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고위직 4명 사의 왜? 내년 명퇴 대상...대선前 앞당겨 사직

서국환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최근 전격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서국환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 신재국 중부국세청 조사 3국장, 장성섭 중부국세청 납세자보호관(부이사관)등 4명이 최근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명예퇴직 의사를 전달했다.

서국환 청장을 비롯한 이들 4명의 사의 표명에 대해 국세청 안팎에서는 시기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관례상 6월

말 또는 12월말 명퇴가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정부 부처 인사 동결 조치로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가 이달말이나 12월초로 앞당겨 질 전망이다.

이들 4명은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및 부이사관급 간부 중 2013년 명예퇴직 대상(1955년생)자들이다. 서국환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하종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경우 각각 지난해 연말 광주청장과 대구청장으로 임명됐으며 신재

국 중부국세청 조사 3국장의 경우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올해 4월 현재 직위에 보임됐다.

서국환 청장을 비롯한 4명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배경에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서국환 청장은 "명퇴에 대한 의사타진에 대해 조직을 위해서 언제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지역민들의 과중한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9월 경제지표 10개중 7개 하강국면

수출·내수 전월보다 감소세 커져 불황 심화

주요 경제지표들이 경기순환상 하강국면에서 더 나빠졌다.

12일 통계청이 작성한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9월 기준으로 10개 지표 가운데 7개가 하강 국면에 있었다.

하강 국면인 지표들은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설비투자지수, 수출액, 수입액,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지수 등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침체임을 보여줬다.

이들 지수는 모두 8월에도 하강국면에 있었으며 9월에는 8월보다 감소세가 커지면서 하강국면의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경기순환시계는 경제지표들이 상

승, 둔화, 하강, 회복 등 4가지 순환국면상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지표들은 계절이나 불규칙 등의 변동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이용해 작성된다.

각 지표가 장기추세선을 웃돌면서 정점까지 올라가는 국면이 상승이며, 정점에서 장기추세선까지 내리가는 국면은 둔화다. 장기추세선을 밑돌면서 저점까지 떨어지는 국면은 하강, 저점에서 장기추세선까지 올라가는 국면은 회복으로 분류된다.

지표들이 하강국면으로 쏠리는 현상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하강인 지표는 없었으나

11월에 둔화에 머물렀던 서비스업생산이 하강으로 떨어졌고 12월에는 소매판매액까지 하강으로 내려섰다.

올해 2월 건설기성도 하강에 들어 서면서 대표적인 내수 지표 3개가 하강에 있었고 3월에는 수출액마저 하강으로 내려서 경기 하강은 수출 부문으로 확대됐다. 4월에는 광공업생산,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추가돼 하강인 지표는 6개로 늘었으며 5월에는 회복국면에 있던 소비자지수까지 하강으로 떨어져 심리지표들도 추락했다.

7월에는 건설기성도 소매판매가 회복돼 하강 지표가 6개로 줄었으나 8, 9월에 소매판매가 다시 위축돼 하강 지표가 7개로 늘었다.

연환뉴스

노틸러스호성 ATM 거래화면 '레드닷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상

노틸러스호성은 고객친화적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화면 디자인으로 '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IF,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효성이 새로 개발한 ATM 거래화면은 기존의 딱딱하고 사무적인 그래픽에서 벗어나 실제 은행원과 거래하는 것처럼

구성해 고객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구성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이 ATM은 작년 11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노틸러스호성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친화적이고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업인의 날 농산물 구매 행렬

12일 광주시민들이 서구 상무시민공원을 찾아 농업인의 날을 맞아 사과 등을 구매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96년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업인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찾아와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96년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지방기업 세무조사 줄여야" 국세행정위원회 주문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가 중소기업,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비중을 축소하고 면제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수동 국세청 청사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세수관리, 역의 탈세, 세무조사 선정 등 현안과 조직체계,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009년 8월 설치돼 국

세행정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기능을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조사받은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의 확산하도록 신고성실도 검증의 정확성을 높여야 탈세위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조사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국세청 조직체계와 관련된 세무별·기능별 분류에서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전환해 탈세수법 진화와 납세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연환뉴스

| | |
|-------------|-------------------|
| 코스피지수 | 1,900.87 (-3.54) |
| 코스닥지수 | 521.43 (+1.53) |
| 금리 (국고채 3년) | 2.79% (0.00) |
| 원·달러 환율 | 1,088.60원 (+1.00) |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기 옥 금호산업 총괄사장 사퇴

원일우 단독 대표 체제로 금호산업을 총괄 경영했던 기 옥 사장이 경영 정상화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원일우(사진)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2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기 사장은 워크아웃(기업개선타작업) 중인 금호산업이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한 관계자는 "부친 중동

의 주상복합아파트인 '금호리첸시아' 공사비 회수를 둘러싸고 채권단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 이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기 사장은 광주일보 출신으로, 1976년 금호산업에 입사해 30여년간 금호예만 몸 담은 정통 금호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원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정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너무 뿌리리라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